

주요 내용

1. [꼰대 인식조사]

꼰대 3종 세트, '요즘 애들은...', '옛날에 비하면...', '나 때는...!'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목회자가 생각하는 정식 교인의 조건
- 2) 가족돌봄청년 실태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꼰대 3종 세트, ‘요즘 애들은...’, ‘옛날에 비하면...’, ‘나 때는...’!

꼰대는 국어사전 상 ‘늙은이’나 ‘선생’, 즉 기성세대를 뜻하는 은어이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확장, 변형되어 연령대와 상관없이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윗사람이나 연장자를 비하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꼰대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성세대의 상명하복식 문화, 서열화된 조직문화 등이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타 세대에 대한 자기중심적 이해에서 오는 불편함이다. 기원전 1만 5000년 구석기 시대 동굴에도 ‘요즘 젊은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걱정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니 젊은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만은 인류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꼰대 문화에 대해서는 넘버즈 22호(2019.11)에서도 다루었는데 그 당시 조사에 비해 새로운 점은 바로 ‘젊은 꼰대’의 등장이다. 10명 중 8명은 젊은 꼰대가 존재한다는 데에 동의했고, 젊은 세대의 절반 이상은 ‘나도 꼰대가 될까 봐 두렵다’는 데에 동의했다. 수직적인 사회구조에 어느새 순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꼰대 문화는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는 교회에도 있다. 이번 <넘버즈 192호>에서는 최근의 꼰대 문화 소개와 꼰대 성향 자가 테스트를 함께 실었다. 본인을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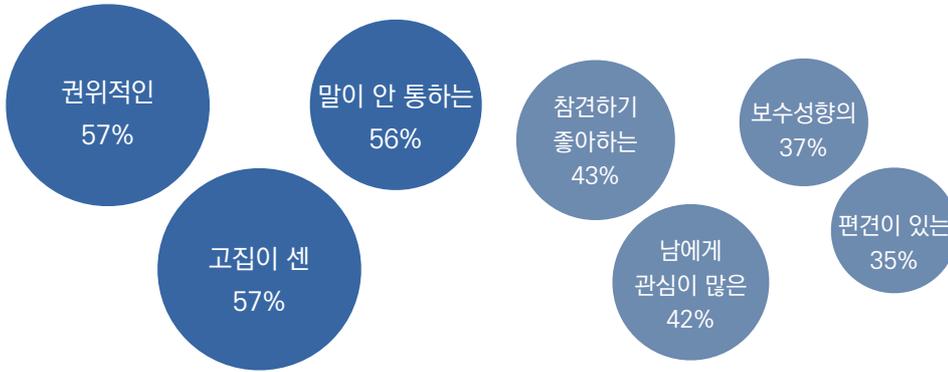
01

[꼰대 이미지]

꼰대 하면 10명 중 6명은 '권위적, 고집 센, 불통' 떠올라!

- ▶ 우리 국민에게 '꼰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조사 결과, '권위적인'(57%), '고집이 센'(57%), '말이 안 통하는'(56%) 등 부정적 이미지를 꼽은 비율이 10명 중 6명 정도로 가장 많았다.

[그림] 꼰대 단어 연상 이미지 (중복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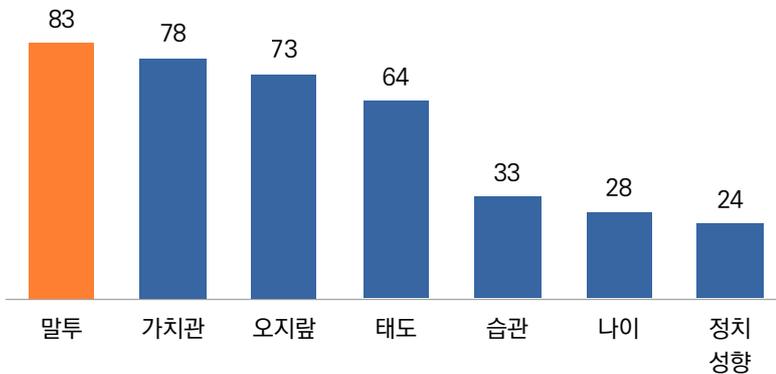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꼰대 관련 인식 조사', 2022.12.23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12.22.~12.23.)

◎ 꼰대스러움은 '말투'로부터 시작!

- ▶ 어떤 사람이 꼰대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말투'가 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치관'(78%), '오지랖'(73%) 등도 꼰대를 가늠케 하는 주요 특징으로 꼽혔다.

[그림] 꼰대 성향이 표출되는 부분 (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꼰대 관련 인식 조사', 2022.12.23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12.22.~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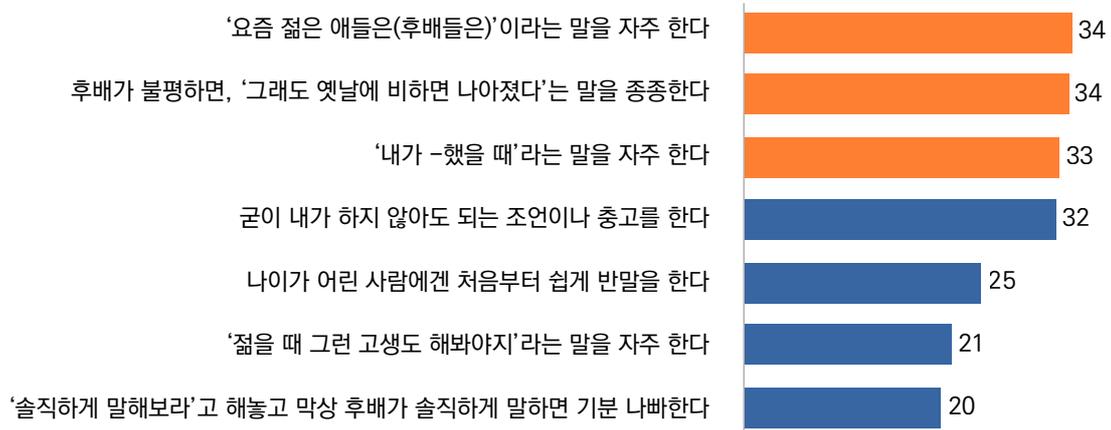
02

[꼰대 특징]

꼰대 3종 세트, '요즘 애들은..', '옛날에 비하면..', '나 때는..!'

- ▶ 최근 느끼는 '꼰대스러운 행동'에 관해 묻은 결과, '요즘 애들은', '내가 ~했을 때(나 때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나아졌다'는 등 현재의 젊은이들을 과거 자신의 경험으로 평가하는 말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꼰대스러운 행동 (중복응답, 상위 7위,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꼰대 관련 인식 조사, 2022.12.23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12.22.~12.23.)

◎ '꼰대는 자기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아', 10명 중 8명 이상 동의!

- ▶ 꼰대의 긍·부정적 특징과 관련된 몇 가지 문항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물었다. 먼저 '꼰대는 자기가 틀린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84%)와 '권위적이다'(82%)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 또, '꼰대는 소신이 있다'에 5명 중 2명이 '그렇다'고 응답한 점이 주목되는데, 사실은 고집이 셈을 반증하는 셈이기도 하다.

[그림] 꼰대의 부정적 특징 동의율** ('그렇다'비율, 상위 4위, %)



[그림] 꼰대의 긍정적 특징 동의율** ('그렇다'비율, 상위 4위,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꼰대 관련 인식 조사, 2022.12.23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12.22.~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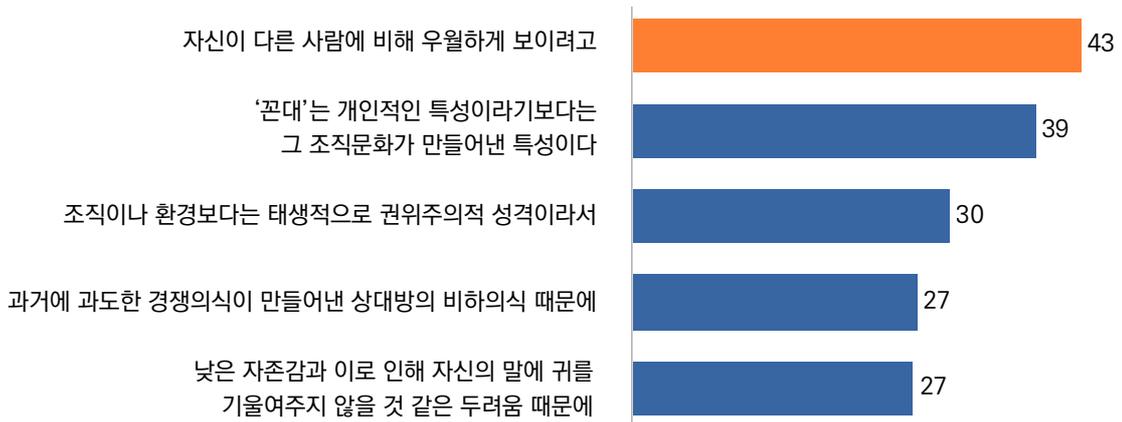
**2점 척도임

03

[꼰대의 원인] ‘우월 의식’과 ‘조직문화’가 꼰대 만들어!

- ▶ 그렇다면 꼰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하게 보이려는’ 욕구가 43%로 1위였다. 그 외에 ‘개인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조직문화가 만들어 낸 특성’과 ‘과도한 경쟁의식이 만들어 낸 상대방에 대한 비하 의식 때문’ 등 사회·문화적 요인을 꼰대 이유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림] 꼰대가 되는 이유 (중복응답,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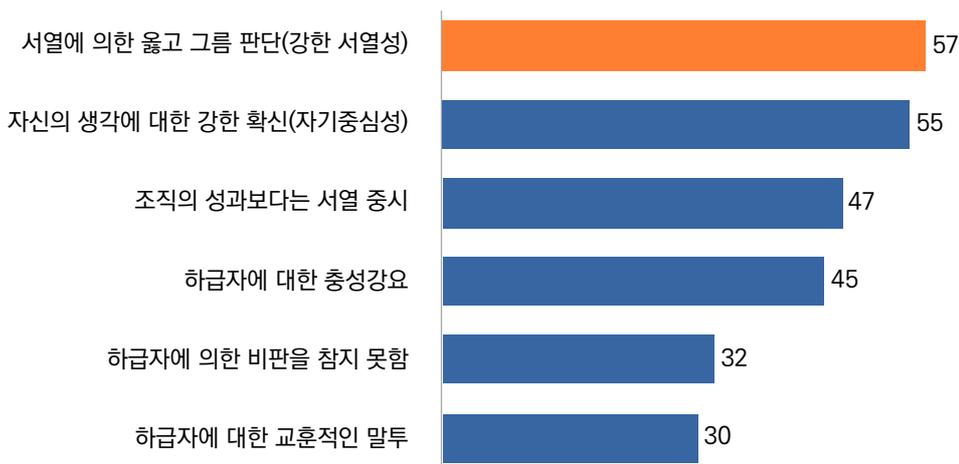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꼰대 관련 인식 조사, 2022.12.23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12.22.~12.23.)

◎ 조직 내 문제 되는 꼰대 특징 1위, 강한 서열의식과 자기 중심성!

- ▶ 조직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꼰대의 특징으로는 ‘서열에 의한 옳고 그름 판단(강한 서열성)’과 ‘자신의 생각에 대한 강한 확신(자기중심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위계/서열을 중시하며 자신이 높아지려는 꼰대적 태도가 조직 내 문제가 됨을 지적한다.

[그림]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꼰대 특징 (중복응답,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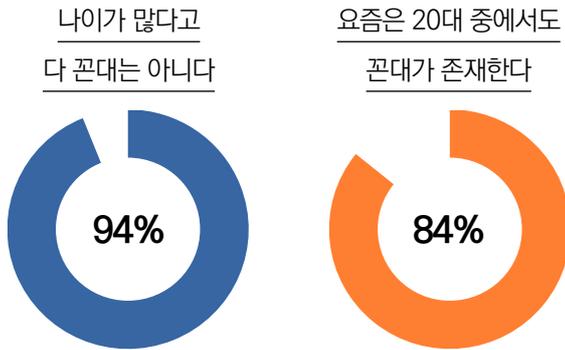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꼰대 관련 인식 조사, 2022.12.23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12.22.~12.23.)

04

[젊은 꼰대] 20대 중에서도 꼰대 있다 84%!

- ▶ 꼰대 성향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걸까? 이제는 '나이가 많다고 다 꼰대는 아니다'라는 인식에 대다수가 동의했으며, '요즘에는 20대 중에서도 꼰대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10명 중 8명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꼰대와 나이 관련 인식 동의율** ('그렇다'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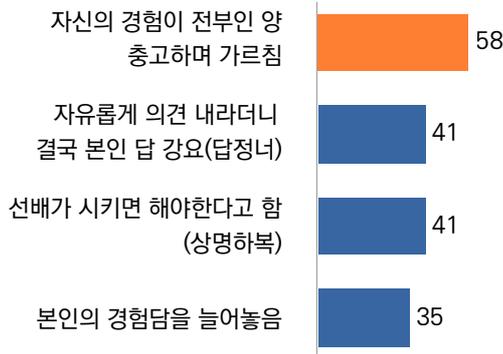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꼰대 관련 인식 조사, 2022.12.23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12.22.-12.23.)
**2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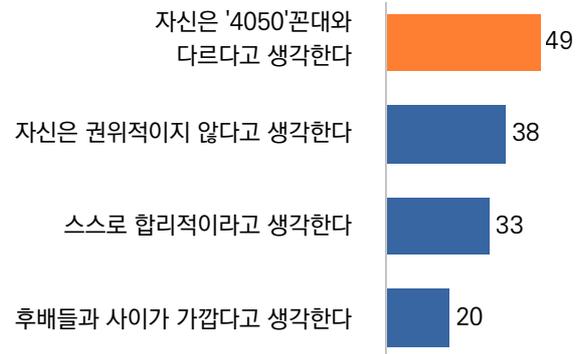
◎ 젊은 꼰대, 나는 윗 세대 꼰대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징

- ▶ 젊은 꼰대들이 하는 꼰대스러운 행동(특징)으로는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양 충고하며 가르치려는 유형'이 58%로 1위 차지했고, 이어서 '자유롭게 의견 내라더니 결국 본인 답 강요(답정너) 유형' 41%,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유형' 41% 순이었다.
- ▶ 2030 젊은 꼰대의 행동 중 흥미로운 부분은 '본인들은 4050 꼰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49%)는 점이다.

[그림] 젊은 꼰대들의 특징
(복수응답, 상위 4위, %)



[그림] 젊은 꼰대들의 오해
(복수응답,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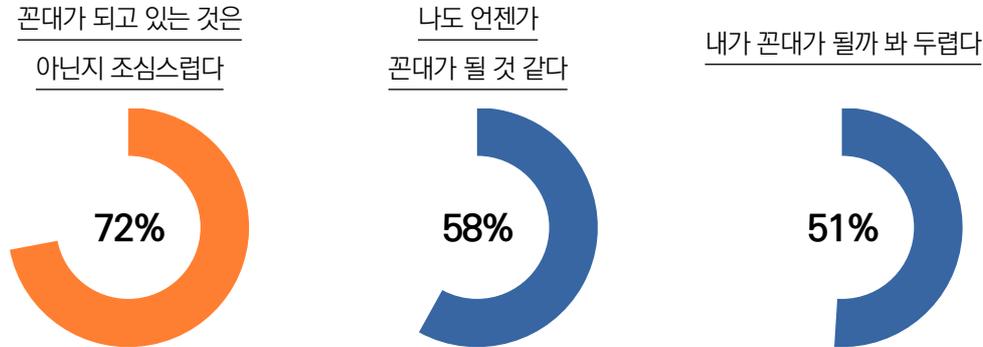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사람인, '2030 젊은 꼰대' 2019.11.10. (직장인 1945명, 온라인 조사, 2019.10.29.-2019.11.04.)

◎ 젊은 층 10명 중 7명, 끈대가 될까 봐 조심스럽다

- ▶ 끈대가 되는 것에 대한 2030세대만의 생각을 살펴봤다. 10명 중 7명이(72%) '나도 끈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다'에 동의했고, 절반 이상이(51%) '내가 끈대가 될까 봐 두렵다'에 동의해 끈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끈대화에 대한 인식 동의율** (2030세대, '그렇다'비율,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끈대 관련 인식 조사, 2022.12.23 (전국 만 19~39세 성인남녀 500명, 온라인 조사, 2022.12.22.~12.23.)

**2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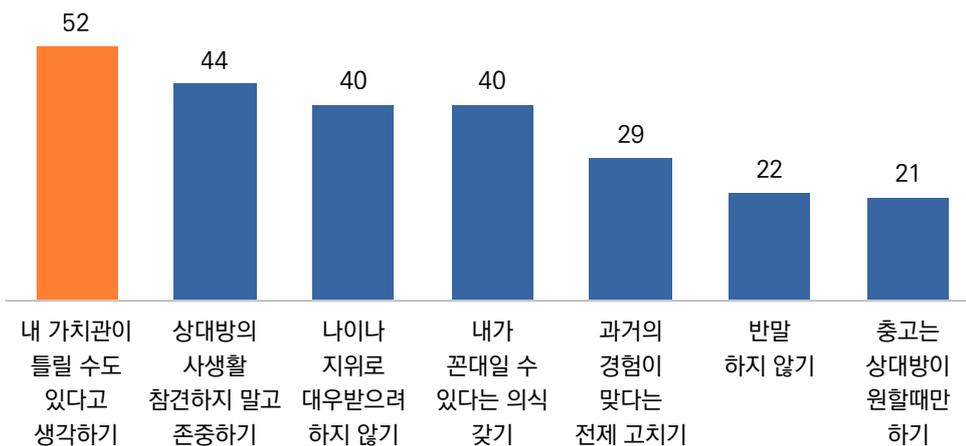
05

[끈대 탈출]

끈대가 되지 않는 방법?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 ▶ 끈대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절반 이상이 '내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를 꼽았다. 그 외 '상대방의 사생활 참견하지 않기', '나이나 지위로 대우받으려 하지 않기', '내가 끈대일 수 있다는 의식 갖기'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끈대가 되지 않는 방법 (중복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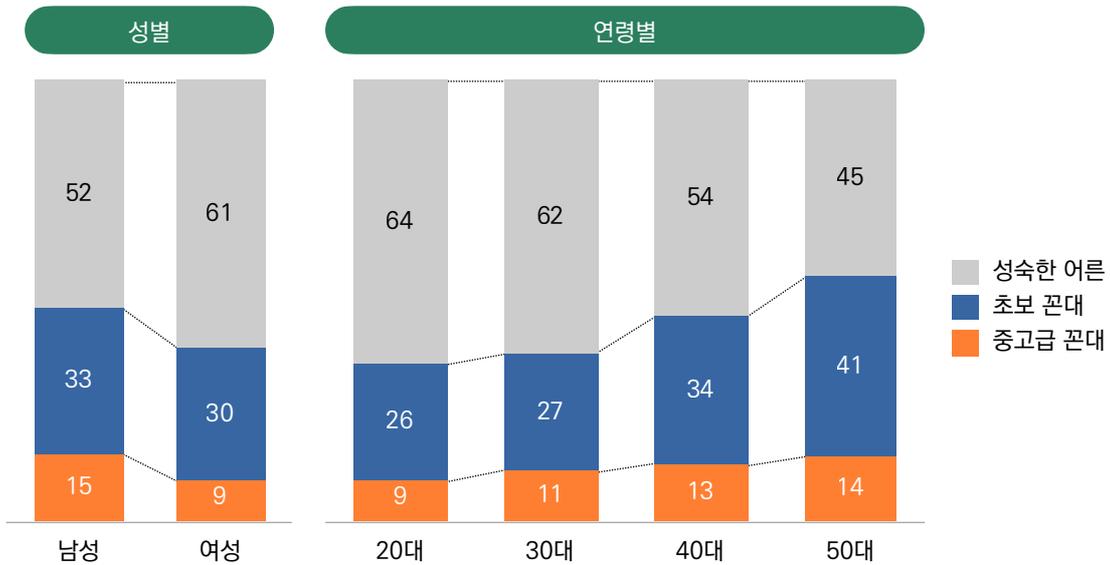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끈대 관련 인식 조사, 2022.12.23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12.22.~12.23.)

06

[꼰대 성향 자가평가] 남성 절반 정도는 꼰대 기질 갖고 있어!

- ▶ 만19~5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꼰대 성향 자가 테스트 항목(20개, 다음 페이지 참조)을 제시하고 '꼰대력'을 평가했다. 4개 이상부터 꼰대라고 정의했는데, 여성(39%)보다는 남성이(48%),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꼰대력이 높았다.

[그림] 꼰대 자가평가 결과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꼰대 관련 인식 조사, 2022.12.23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12.22.~12.23.)

나는 꼰대입니까? (꼰대 성향 자가 테스트)

Q. 다음은 평소 주변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을 나열한 항목입니다. 평소 귀하께서 주변 분들을 대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개수를 세어보세요.

- |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옷차림이나 인사예절도 근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선배로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OO(이)란, OOO인 거야” 식의 진리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낯선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에게는 친히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는 했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요즘 ‘젊은이’들이(혹은 ‘후배’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 탓, 불평불만만 한다고 생각한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젊은이(혹은 후배)에게 “비켜라”고 말하고픈 충동이 있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간부, 유명 연예인, 혹은 유명인 등과의 개인적 인연을 자주 얘기하게 된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가 너만 했을 때” 얘기를 자주한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뭘 배워본 적은 없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주알고주알 스타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인한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식이나 아우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반사적으로 그의 단점과 약점을 찾게 된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애사와 자녀계획 같은 사생활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가 한 때 잘나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한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커피, 담배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거나 회식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아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후배가 불쾌하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자주 한다 |

결 과

8개 이상 동의 시 : 중고급 꼰대

4~7개 동의 시 : 초보 꼰대

3개 이하 동의 시 : 성숙한 어른

‘꼰대’라는 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좋은 말은 아니다. 예전에 꼰대는 아버지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말이었지만 요즘 꼰대는 ‘권위적’이고 ‘고집이 세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꼰대의 부정적 특징으로는 ‘자기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위적이다’라는 점들이 거론된다. ‘요즘 젊은 애들은’, ‘옛날에 비하면 나아졌다’, ‘내가 ~했을 때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꼰대스러운 행동이라고 한다. ‘꼰대’가 중장년만 일컫는 호칭은 아니다. 요즘에는 ‘젊은 꼰대’도 있다. 젊은 꼰대도 자기 경험을 과신하고 자기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꼰대는 나이로 분류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 성향이 더 핵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을 종합하여 ‘꼰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경험에 근거한 권위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경험에 근거한 권위주의’는 두 가지 의미에서 시대착오적이다. 첫째로 ‘경험’이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전통 사회는 시대 변화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근거가 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귀중한 지침을 준다. 그래서 나이와 경험이 중요하며 노인들이 존중받고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현대는 시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서 그 변화를 쫓아가기도 쉽지 않으므로 어제의 경험이 권위를 가지기 어렵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 현재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쫓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둘째로 ‘권위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계몽주의 이후에 개인의 중요성과 권리가 부각되어 수평적 문화가 일상화된 현대는 권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 권위주의는 배척의 대상이 될 뿐이다. 권위주의의 약화에 따라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3가지 권위, 즉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 가운데 전통적 권위와 카리스마적 권위는 거의 사라지고 합법적 권위도 오남용될 경우 타도되는 것이 현대적 양상이다.

‘자기 경험에 근거한 권위주의’가 사회에서 존립할 근거가 없어지면서 ‘꼰대’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어떤 사람이 ‘꼰대’라고, 어떤 행동이 ‘꼰대스럽다’라고 낙인찍히면 그 사람을 가까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타당한지를 따지기 이전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상대방이 그 말을 최소한 듣게라도 하려면 주장하는 사람이 ‘꼰대스럽지’ 않아야 한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는 말씀은 진리를 가르치라고 하는 구절이다. 성경의 진리와 말씀은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며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친다.

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에 가르치는 이에 따라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기독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도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 즉 ‘꼰대스러움’이다.¹⁾ 앞에서 언급한대로 교회가 ‘꼰대스러움’ 때 거부감부터 갖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성경의 올바른 교훈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교회 리더들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는 것을 철수는 없다. 성경이 요구하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마땅히 지어야 할 책임이다. 그 책임을 ‘결과 있는’ 책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의 권위에 의존하되 권위주의적 태도는 버려야 한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마음으로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성향을 존중하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르칠 것은 지혜롭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젊은 세대는 비록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듣기 싫은 것이 있고 전달 방식이 꼰대스럽더라도 가르치는 내용의 본질을 직시하여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나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 지점에서부터 소통할 때 교회는 서로 소통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1)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교회탐구센터, ‘코로나 시대, 기독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202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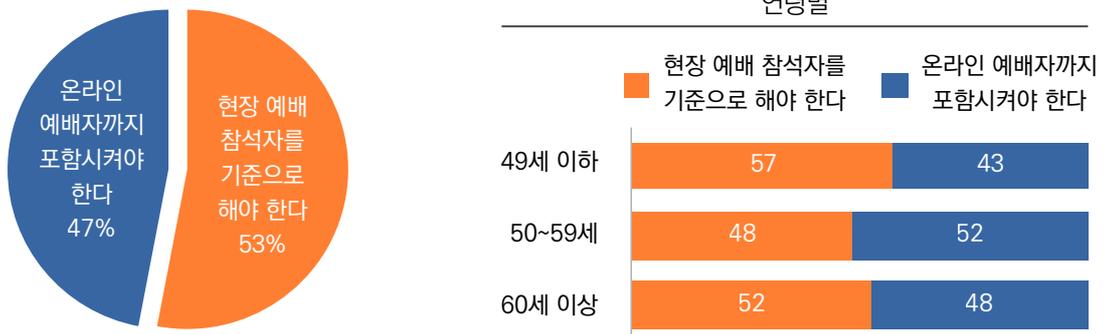
- 1.[목회자가 생각하는 정식 교인의 조건]
- 2.[가족돌봄청년 실태]



정식 교인 조건, 현장 예배 참석자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53%

- ▶ 목회자들에게 시무 교회 정식 교인의 조건을 현장 예배자와 온라인 예배자를 기준으로 물었다. 그 결과 ‘현장 예배 참석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가 53%, ‘온라인 예배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47%로 현장 예배 참석자만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
- ▶ 이를 연령별로 보면 49세 이하 목회자의 ‘현장 예배 참석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목회자의 정식 교인 조건 인식 : 현장 예배 여부 (교회 등록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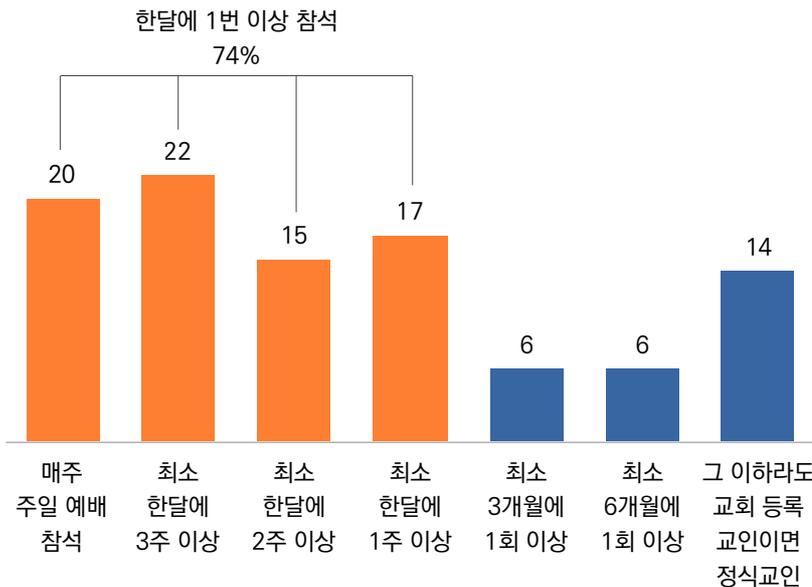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정식 교인의 조건 인식 조사, 2023.04.03 (전국 개신교 담임목사/부목사 650명, 모바일 조사, 2023.03.24~03.25)

◎ 정식 교인 자격은 주일예배 1달에 1번 이상 참석!

- ▶ 정식 교인의 조건을 예배 참석 빈도를 기준으로 물은 결과, 전체적으로 ‘최소 한 달에 1주 이상’ 주일 예배 참석해야 정식교인이라는 의견이 목회자 4명 중 3명꼴로 응답됐다.

[그림] 목회자의 정식교인 조건 인식 : 주일예배 참석 횟수 (교회 등록자 기준, %)



*자료 출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정식 교인의 조건 인식 조사, 2023.04.03 (전국 개신교 담임목사/부목사 650명, 모바일 조사, 2023.03.24~0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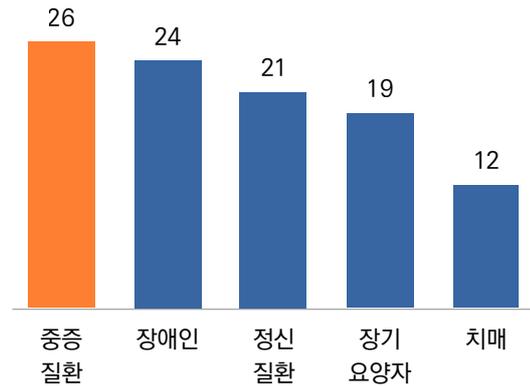
가족돌봄청년, 하루 3시간 이상을 장애 있는 가족 돌보며 지낸다!

- ▶ 가족돌봄청년이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이들의 평균 돌봄 기간은 46개월(약 4년)이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2시간으로 하루 약 3시간을 돌봄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림] 돌봄시간/돌봄기간 (가족돌봄청년)



[그림] 돌봄 대상자 건강상태 (중복응답, 기타 미포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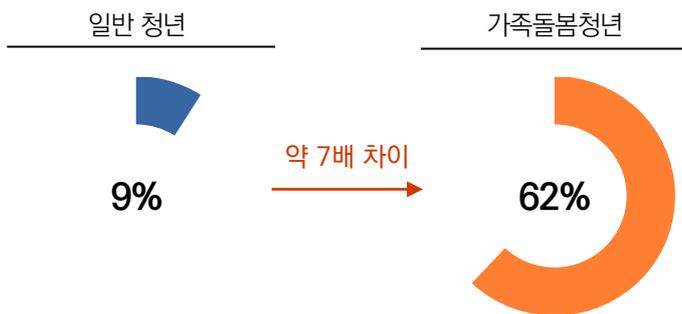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2023.04.27(설문조사: 전국 만 13~34세 총 43,832명, 온라인 조사, 2022.04-05/ 심층조사: 설문조사 시 가족돌봄청년으로 확인된 810명, 온라인 조사, 2022.07-09)

◎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 일반 청년 대비 7배나 높다!

- ▶ 한편, 가족돌봄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울감 유병률은 62%로 일반 청년(9%)에 비해 무려 7배가 높았다.

[그림] 우울감 유병률 (일반 청년 vs 가족돌봄청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2023.04.27(설문조사: 전국 만 13~34세 총 43,832명, 온라인 조사, 2022.04-05/ 심층조사: 설문조사 시 가족돌봄청년으로 확인된 810명, 온라인 조사, 2022.07-09)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42호 \(2023년 5월 2주\)](#)

- 제13~20대 대통령 취임 1주년 무렵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한일정상회담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96호 \(2023년 5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부정 평가 이유, 국정운영 기대감, 국정운영 신뢰도 등

◎ 사회 일반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니...사별한 6070 남성에게 닥친 현실](#)

조선일보_2023.05.15.

[결혼과 양육 관련 인식: 동년배 이성\(異性\),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생각](#)

한국갤럽_2023.05.11.

[썩썩한 스승의 날... '교사 때려치우고 싶다' 무려 87%](#)

국민일보_2023.05.15.

[서울 시민 80% "서울은 야간활동 좋은 도시"\(서울시 야간활동 현황조사\)](#)

매일경제_2023.05.09.

[생활고에 편견까지 ... 두번 우는 '싱글맘'](#)

매일경제_2023.05.07.

[소득 상위 10% 40대 초반 남성 96% 결혼...하위 10%는 58% 불과](#)

연합뉴스_2023.05.14.

[상식 뿌리치는 '임영웅 이코노미'...'K-브랜드'에 시사점은](#)

디지털타임스_2023.05.13.

[68살, 도서관 책 덮고 경비로...노인 못 쉬는 나라 1위 '한국'](#)

한겨레_2023.05.12.

[\[2023 대북인식조사\]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대북정책 방향성 평가](#)

한국리서치(여론속의여론)_2023.05.09.

[진짜 민심 맞습니까... 가짜뉴스 같은 여론조사](#)

조선일보_2023.05.11.

["가슴 뛰고 숨막혀"... '대한민국 허리' 4050, 공황장애 시달린다](#)

조선일보_2023.05.16.

◎ 청년 / 청소년

["친구 구구단 하는데, 난 덧셈도 안돼" 문 열린 학교 충격결과](#)

중앙일보_2023.05.11.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업 / 경제

[MZ 직장인 절반 이상 "임원 승진 생각없다"](#)

연합뉴스_2023.05.12.

[직장인 70% "AI 활용할 것" 49%는 "일자리 뺏길까 걱정"](#)

조선일보_2023.05.11.

[수도권 기업 10곳 중 6곳 "지방 이전 계획 없다...인력 확보 어려워"](#)

한겨레_2023.05.12.

[카페·온라인몰 사장님 절반이 MZ세대](#)

중앙일보_2023.05.10.

[일인백색시대...백인일색 인사관리로는 Z세대 못 잡는다](#)

중앙일보_2023.05.11.

◎ 혁신 이야기

[인구도 늘게 한 백종원 '예산 기적'... "공무원들 날 죽이고 싶을걸유?"](#)

조선일보_2023.05.15.

◎ 국제

["본인 직업에 만족하는 미국인 62.3%...사상 최고"](#)

연합뉴스_2023.05.12.

◎ 건강

[45세 이상 5분의 1이 앓는 '관절염'... 걱정 체중·바른 자세로 예방을](#)

서울신문_2023.05.03.

◎ 기독교 / 종교

[국내 보수 교단 유리천장 여전히 단단... 실금도 못냈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05.02.

[가파른 교인 감소...노회가 팔 걸었다](#)

한국기독교공보_2023.05.08.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에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역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신규 후원 |

브니엘감리교회(담임목사 유병용), 이택준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명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2023 청소년사역 컨퍼런스

우리 연구소와 함께 한국 월드비전, 알파 코리아, CTS,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그리고 브리지 임팩트사역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청소년사역 컨퍼런스」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 시 : 2023년 7월 3일(월) ~ 5일(수)

장 소 : 신용산교회 (용산구 서빙고로 17)

문 의 : 02-2078-7000

